

언론부흥사협의회 2018. 하계수련회 개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지저스타임즈'

지저스타임즈 JTNTV 및 한국기독교언론부흥사협의회(이사장 대표회장 허창범 목사)는 지난 7월 5일~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전국 지사장들과 본사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부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사무총장 겸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인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상임이사/상임회장 신인창 목사(웨신총회 부총회장)가 기도했다.

이사장 및 대표회장 허창범 목사(예장웨신 총회장)는 마6:13-16절을 중심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지저스타임즈"라는 제하의 설교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명예총재 겸 사장 소진우 목사(예장복교회)는 특강 첫 시간 오전 14:40절을 인용 "갓총과 지킴"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두 번째 시간 특강은 이사장 허창범 목사는 "부흥사의 설교의 방향"이란 주제



로, 세 번째 특강에 실무회장 윤재섭 목사는 오전 9:16절을 중심으로 "전도는 사랑이고 사랑이다"라며 강의했다.

이렇게 새벽 경건예배에 부이사장 및 부총재 박정근 목사(대전변성교회)는 행 27:20~26절을 본문으로 "풍랑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네 번째 특강에서 박정근 목사는 "오직 성령 충만"을 주제로 강의했다. 다섯 번째 특강에 나선 연수원장 이흥희 목사(축복받은교

회)는 행 8:14~21절을 인용 "부흥회와 부흥강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폐회예배에 사장 소진우 목사는 시 2:7~9절을 본문으로 "그래서 당당합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총재

및 이사장 허창범 목사의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지저스타임즈 및 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는 1박 2일간의 수련회 및 단합대회를 통해 은혜롭고 화합된 모습 속에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되었기에 2019년 하계수련회는 2박3일을 갖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짧은 시간 많은 도전을 받았으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번 수련회 기간 강사들의 특강의 내용이 너무도 좋았다는 평을 얻었기에 도착예배와 폐회예배, 강사들의 특강을 동영상으로 편집되어 JTNTV(http://jntv.kr)방송된다.

또한 발행인 정기남 목사는 영적으로 참례되고 어두워져가는 이 때 본 언론사는 이사장 및 사장, 모든 이사들과 임원들이 한국교회의 경신과 부흥을 위하여 두 무릎을 꿇고, 나아가 기독교적 본질 그대로의 정신을 일깨우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본 언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매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데 힘쓰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인터넷신문 JTNTV(http://www.jntv.kr) 크리산포터저널(CPJ http://cpj.kr) 방송은 이사장, 사장 모든 이사들과 기자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경신을 위해 펜촉을 잡고 닦을 것을 약속드리며, 현 시대의 죄와 잘못을 성경의 양심으로 올바르게 지적하면서 바른 진리

만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신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론직필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며 포부를 밝혔다.

2018년 7월 하계수련회가 아름답게 은혜운데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장 허창범 목사(광주부흥교회)가 13개의 객실과 세미나실 사용료 등을 제공하고, 부이사장 박정근 목사(변성교회)가 저녁식사를, 운영이사 윤재섭 목사가 아침식사를 대접하고, 사장 소진우 목사가 폐회예배 후 강원도에서 소문난 맛집 원인숙 교성생선점을 대접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모습들로 1박2일의 짧은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 언론사 여름 수련회를 위해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기념타올 80부, 수석상임이사 오종설 목사(홍성제일교회), 부이사장 이규필 목사(예장합동부흥총회), 부이사장 김대성 목사(삼성중앙교회), 꾸미오리 정창숙 목사(운영이사), 강사단장 조영만 목사(인천시온교회), 연수원장 이흥희 목사(축복받은교회),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등불교회), 등이 찬조했다.

JTNTV방송, CPJ방송, 지저스타임즈를 통한 문서선교와 언론부흥사협의회를 통한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시며 한국교회와 전국을 성시화하여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 데 한바탕 되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자 섬기는 목양자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망국적인 동성애자들의 음란광란의 질주

매년 반복되는 동성애축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왜 구경만 하는가...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

소통과 고모라를 빌붙게 하는 동성애자들의 광란의 질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은 망국으로 가는 저들의 음란광란의 집회를 반드시 막아야만 국가와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현재 국가도 경제도 위기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서 이를 저지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동성애자(HOMOSEX)들의 음란광란집회가 매년 공공장소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떠야한다. 동성

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또한 윤리와 도덕과 가정을 파괴하며, 청소년들에게 인격과 삶을 폐해하도록 오염시키는 동성애 바이러스가 깊숙이 침투되고 있다. 또한 미풍양속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는 최악이며 마약과도 같다.

대한민국은 동성애 바이러스가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확산일로에 있어 참으로 심각한 때이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여러분 더 이상 망국으로 가는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공공장소의 집회를 언제까지 참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거대한 로마제국이 왜 망했는가 동성애 음란 창궐로 망했다. 현 정부는 이를 깨달아야 한다. 현 정부는 동성애 합법화의 깃발을 내려놓고 건강한 국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한다.

금년에도 지난 6월 23일(토)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동성애퀴어음란광란의 질주가 있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과 전통과 가치를 훼손하고 조롱하는 것이며, 망국으로 가는 폐륜적인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를 넘어 영적인 육적인 전신상황에서 전국교회가 영적으로 뭉쳐서 기도할 때임을 알자.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베트남 폐망과 로마제국의 폐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깨어

나야 한다.

현재 자유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가정과 청소년들, 교회마저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때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처처에 십자가의 빛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은 없다. 혹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인지 빛과 소금역할이 약해지고, 교회가 인본주의로 변질되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격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격정하고 있다. 반드시 한국교회가 세상과 차별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베굴주의와 맘몬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는 눈물의 회개기도가 필요하다.

문 정부와 서울시장의 대한민국의 열굴인 서울광장을 동성애퀴어음란광란집회로 소통과 고모라로 만드는 무책임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 건강한 사회,



경제가 살아나는 정부가 되기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이다.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

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요 1서 2:15~17)야만.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2017년 2월	2017년 6월	2017년 9월	2018년 1월	2018년 4월
5 안양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4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48 은누리복음교회(최수현 원장)	1-3 양평지역연합교회(최정호 원장)	1월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7-9 삼동교회(고정익 목사)	6-9 김관산기도원(이복란 원장)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11-14 교단총회	8-10 상대교회(황인옥 목사)	2월-4월 공평성경교회(조재용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3-17 선교지 세미나	12-16 선교지서약세미나	18-21 중기교회(박찬기 목사)	14 은천교회(소치영 목사)	9월-11월 산동교회(한성진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방)	20-22 초대총연합회(김영남 목사)	18-30 본교회 2주년축하대성회	24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6월-26일 여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5-27 비전교회(김경환 목사)	15-18 배병중장학교회(김영환 원장)	29일-3월 3일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원 목사)	
28-30 행복예수원교회(이명건 목사)				29-1 광운기도원(김현 원장)	
2016년 12월	2017년 3월	2017년 7월	2017년 10월	2018년 2월	2018년 5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2 예복교회(소진우 원장)	25 추석주간	5-8 김관산기도원(이복란 원장)	31-3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2-15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3-6 관산수원(김영만 원장)	9-10 장기도회	11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4 안양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3-5 홍주교회(오영석 목사)	7-12 사랑의교회(고정익 목사)	16-18 주시랑교회(조연우 목사)	14 오산리금기도원(김영환 원장)	7-10 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26-30 은사리교회(최석기 목사)	6 오산리금기도원(김영환 원장)	17-19 오리아교회(조선익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6-24 미추령부흥회	14 오산리금기도원(김영환 원장)
	9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24-28 선교지서약세미나	30-4 인도서약방문주간	11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6-24 미추령부흥회
	10-13 오정성교회(이주형 목사)	30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2-17 설주간	2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7-18 장기도회			19-21 점촌교회(김우석 목사)	
	18-20 양매교회(정진수 목사)			26-28 실목교회(조인희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2017년 4월	2017년 8월	2017년 11월	2018년 3월	2018년 8월
	3-5 홍주교회(오영석 목사)	3 안양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5-8 주안중앙교회(박승순 목사)	1월 안양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 오산리금기도원(김영환 원장)	7-10 임미누엘수원(이수영 원장)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4월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6-8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원장)
	9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9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9-10 행복으로 가는교회(최석기 목사)
	10-13 오정성교회(이주형 목사)	14-17 광운기도원(김현 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13-16 광운기도원(김현 원장)
	17-18 장기도회	21-24 김관산기도원(이복란 원장)	27-1 필리핀 서약지 컨퍼런스		19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8-20 양매교회(정진수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20-23 김관산기도원(이복란 원장)
	24-2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28-31 천문기도원(최정호 원장)			27-30 천문기도원(최정호 원장)
	2017년 5월	2017년 12월	2018년 6월 7월은 안식일	2018년 7월	2018년 12월
	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4-6 살동교회(고정익)			3월은 봄철 축복 대 심방의 달
	8-12 내팔산교회(박민 목사)	11-14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4월 천보산기도원(정재원 원장)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18-21 관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안식기도			
	29-31 초대교회(윤호준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김기동 목사 초청 부흥성회

<한 영혼을 소중히>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침례교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담임 이수형 목사)가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초청 부흥성회"를 지난 24일(주일)~28일(화)까지 개최했다.

24일(주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번 성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눅 15:4)"란 주제로 김기동 목사(미국 LA 소중함교회, 고구마전도왕)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불리는 김기동 목사는 많이 찢어진 고구마가 더 빨리 익는다는 평범한 생활의 발견으로부터 엄청난 전도의 원리를 이끌어 내었다. 김목사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며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는 생각도 버려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이며, 내 경험과 내 신앙의 연륜, 내 직분과 내 생각으로 하는 전도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

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4마디이며, 전도 대상자에게 친친이나 공동의 관심사를 건넌 후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게 첫번째 첫걸음이며, 이 질문에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과 표정으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라고 두번째 첫 걸음으로 찢어보아야 하며, 이 두 번째 말과 함께 정말 좋은 표정과 말투로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해

야한다. 한번 확인된 생고구마는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벽, 오전, 저녁성회에서 열려 있습니까? 믿으십니까?(마 6:31~34), 정제입니까? 부흥입니까?(합 3:2),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마 22:37~40), 구경꾼입니까? 기쁨입니까?(눅 15:4~7), 열 두 돌을 기념하라(수 4:1~7),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롬

1:16~17), 원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요 21:1~6) 제목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강조하며, 전도의 중요성과 실제적 방법을 나누고,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과 삶에서의 전도를 다시 돌아보도록 했다.

이번 부흥성회 기간 중 좋은친구, 호산나, 여호수아 찬양단의 찬양인도와 임마누엘, 갈릴리, 시온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 드렸으며, 아멘코러스 남성중창단, 하늘소리 여성중창단, 고운가루 몸찬양단, 이경수 장로의 색소폰 연주, 정연빈 청년의 특송이 있었다.

이번 성회를 인도한 김기동 목사는 미국 소중함교회 담임목사, 고구마글로벌미션 대표, 고구마전도왕, Mr.고구마의 전도행진, 고구마전도학교의 저지이며 국내외의 많은 전도세미나와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있고, 고구마글로벌미션을 통해 전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순복음침례교회 이수형 담임목사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전도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재발견하였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전도에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영혼구원 사명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68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



일중하고 다름을 멀리할 뿐 아니라 형제애, 조국애, 인류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편단심 하나님의 향찬을 원동력으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한 다윗을 예로 들며 "찬송이아말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의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기에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평화의 민족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갈망하고, 율법을 준수함을 즐거워해야 하며 둘째, 말씀이 진리임을

지 하나님의 영여주권을 믿으며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사)세계인 대표회장 최목석 목사, 사)한개협, 사)세계연, 사)한개신협 등 3개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예장통합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위하여 예장개혁신교회 부총회장 정광용 목사 등이 각각 기도를 하고, 예장개혁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사)한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CBS '변상욱의 사이판' 방영직전 금지되어

성락교회, CBS 방영금지처분 승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행과 재정 의혹에 관하여 CBS "변상욱의 사이판" 프로그램에서 오는 7월 6일과 13일에 방영하려다가 성락교회에서 신청한 방영금지처분 결과로 인해 예정된 방영 직전에 금지되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인사에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락교회 관련 JTBC의 편파적 허위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 송출에서 이미 그와 같은 전례를 보여 주었다.

현재 성락교회의 분쟁상황과 다수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치 않고, CBS가 교회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 분열측(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혁')과 결탁하여, 성락교회에는 일체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열측의 진술과 자료의 내용으로 방송하려다가, 방영 예정일(6일) 이틀 전에 분열측 악성 문자 광고를 통해 교회측이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방영금지처분 조치를 시급하



게 취했던 것이다. '사이판'이 판치는 세상' 졸업판 "사이판" 토크쇼 프로그램은 가칭 "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의 흑역사" 토크에 참석한 윤준호(성락교회 파면목사) 및 분열측의 허위 진술을 예고편을 통해 노출한 바, 분열측의 허위 정보에 편승한 편향된 정보와 내용을 토대로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현, 원로감독)를 사이버로 정죄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보여 주었다.

CBS 방영금지처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방영금지 결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영시 채권자(성락교회)의 명예나 인격권 등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채권자들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판시했다.

그리고 성락교회(채권자)가 예고편에 대하여 반박한 주장이 인용된 목록, 즉 CBS 프로그램 방송, 광고, 인터넷 등에 게시를 금지한 내용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사이판에 해당하는 오소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 내용이 있다는 근거를 밝히지 못한 점, ②성락교회의 분열상황이라는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점, ③김기동 목사의 의혹에 대한 성락교회의 입장이나 반박·해명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소개·반영하지 않은 점, ④윤준호 및 교개혁 측의 진술과 자료만을 내세워 김기동 목사의 교회재산 횡령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화한 점, ⑤ 김 목사가 성락교회 신도들을 성추행·성추행했다는 윤준호의 진술과 그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점 등이다.

성락교회 개척 이래 50여 년 가까운 역사 동안, 국내 기독교계 내부에 이단사비는 있었을지언정 사이버로 평민된 적도 없고 사이버적

인 사건이나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는 성서적, 복음적 추구의 대형교회, 국내의 수만 명의 영방교회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성락교회를 향하여 사이판이라는 가정 아래 진행하려는 이 프로그램의 합리성에 대해 판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김기동 목사에 관한 재정 건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판계류 중인 것이 소수 있으며, 성추문 문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한 건 외에 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없는 실정이다.

성락교회 분쟁 당사자 분열측의 실제에 대하여 거듭 재언하자면, 일방적 교회개혁협의회는 지난 1년 반이 넘도록 교회운영권과 재산탈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폭행, 교회파괴와 불법점거, 현금 미전달 및 자체 활동비 유용, 언론공작(SBS, JTBC, 신문사)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단체일 뿐이다.

성락교회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힘입어 앞으로 불법측의 이러한 허위정보나 결탁에 동조하는 언론방송사에 민·형사 또는 준사법기관을 통한 소송을 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교회와 감독과 성도들을 지킬 것을 결연히 다짐하는 바이다.

한교총, 월드비전과 업무협약 '취약 아동 위한 사역에 손잡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27일 월드비전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교회에 주신 사명과 한국교회의 사역확대를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교총을 대표해 전개한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예장통합 총회장)가, 월드비전에서는 양호승 회장이 나섰으며, 실무진들이 배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쌍방은 양 기관의 규정과 전통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한교총은 월드비전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회원교단들과 함께 협력하며, 월드비전은 사역의 계획과 진행과 홍보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전개한 목사는 "한국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세워진 월드비전과 협약을 갖고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국은 물론 세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한 사업에 공동협력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양호승 회장은, "고아들을 위해 해온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며, 한국교회의 축복 속에서 이 일이 더욱 확대되며, 견고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교총에는 현재 예장통합과 통

합을 비롯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하나님의성회를 비롯한 주요 교파 30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드비전은 (Worldvision)은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설립되어, 현재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아동,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NGO이다. 국내 지역으로는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꿈꾸는 아이들 사업단 및 가정개발센터 16개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11개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공부방 2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운영, 전국 69개 시설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취약아동을 위한 사업으로는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33개국, 129개사업장에서 마을 자립을 위한 사업 등을 펴고 있다. 국내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과 세계 최대 아동사역 NGO인 월드비전이 사역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역할에 기대를 갖게 되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전개한최기학전명구 이영훈 목사

http://www.mokpojuan.com

담임목사 모상련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밤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겨울 7:00)
 새벽예배 오전 5:0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을 행복하게

본교회: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복합동)
 TEL. 061)272-4908, FAX:(061)276-1006
 남약예배당: 목포시 남약로 52번길 남약리복합동 301 TEL. 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지저스타임즈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애독자 제위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이 벌써 창간 13년이 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시시오. 1년 48,000원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피종진 목사 이사장 : 허창범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j@naver.com

3교회연합 제4회 예일음악회 열어

주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합3:18)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합 3:18)란 주제로 제4회 예일음악회가 지난 6월 23일(토) 오후 2시 경기 안산에 위치한 예일장로교회(담임 강명구 목사)에서 개최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지역사회에는 빛을 발하는 은혜의 장이 되었다. 이날 예일음악회가 고향교회(이성호 목사), 신덕교회(김진종 목사), 예일장로교회 등 3개교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 예배는 강명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신덕교회 김진종 목사의 뜨거운 기도, 강 목사는 시편 150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삶이 찬양 콘서트'가 되게 하리'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강 목사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소리치며 선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며,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되기를 기원했다.

이러한 찬양은 '숨 쉬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특히 주님

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부여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신앙 모습이라고 했다.

또한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콘서트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향교회 이성호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제2부 순서는 정송운 집사(예일장로교회)의 인도로 예일장로교회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음악회는 은혜롭고 뜨겁게 막이 올랐으며, 각 교회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된 팀들이 한 팀씩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음악회에는 예일장로교회(강명구 목사)에서는 정송운 집사-강예은 자매-고윤아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고향교회(이성호 목사)에서

는 첼로를 연주하는 자매들-트럼펫 연주하는 멋진 청년-이윤석, 강수현 청년이 듀엣을 찬양하였고, 원어민 강사인 Chris가 작곡곡을 가지고 멋진 기타 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양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멀리 충청도에서 올라온 신덕교회(김진종 목사)에서는 김진종 목사와 함께 한 찬양팀을 실력있는 멋진 연주와 열정적이고 뜨거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특히 신덕교회 집사는 태종에 9개월 된 귀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은혜가 배가 되었다. 마지막 휘날리는 5명의 신덕교회 치어리딩 팀의 열정적이고, 활동력 있는 치어리딩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예일음악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명구 목사는 음악회가 4회째 이어오기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처음 지하 30평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상 2층으



로 올라오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모이는듯하면 떠나는 성도들의 거듭되는 이동이, 참 견디기 힘들 고통의 시간이었다. 개척 10년 만에 주의 은혜로 지상으로 올라왔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꼭 하고 싶었던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찬양팀을 조직해서 찬양 콘서트와 찬양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찬양을 하면 힘이 나고 생동감을 느끼며, 답답함이 생기고 기도문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자주 하기에 지금도 찬양을 늘 가까이 한다. 지상으로 올라왔으나 교회 형편은 찬양팀 조직이나 찬양 콘서트를 열만큼 자원과 여건이 넉넉하지 못했다. 고교생 너 다식과 중년을 넘긴 집사들로는 찬양 콘서트를 하기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감사한 것은, 목회자의 뜻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성도가 없다. 목회자가 사역을 결심하고 설명하면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순종과 협력하여 마음을 모아 준다. 목회자가 계획을 세워 임무를 맡기면, 모르는 일들은 수차례 상의해가면서라도 그 일은 감당해준다. 목회자가 잘 해서가 아니다. 우리교회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믿음과 심성이 아름다우시다. 대중 앞에서 노래해 본 적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음악회를 개최해서 주관한다는 것에 선택 용기가 있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음악회 준비에 열중해 주었다. 습지고 뉘새나는 지하를 벗어나

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록 숫자는 몇 되지 않아 행사를 감당할 일꾼은 부족하지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가 마음을 합하면 분명 주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음악회 날짜를 선포하고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해 갔다. 기도하던 중에, 너희 힘이 부족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감동을 받고, 평소 친분 있는 노회 목사들께 행사취지를 설명하니, 서너 교회가 흔쾌히 동참에 응해 주었다.

드디어 2018년 6월 15일 오후 4시에 제4회 예일 찬양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천양양교회, 천안행복교회, 천안소망교회, 시흥건강교회, 동산교회 여집사, 한양대유학생, 그리고 예일장로교회 학생들과 성도들로, 40명 예배대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찼다. 놀라운 일이었다. 뜨겁고 은혜롭고 감동 있는 제1회 찬양 콘서트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열렸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는 일에는 뒷짐 지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또 한 번 체험했다. 찬양 콘서트를 무사히 마치자 주님이 함께하시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얻으니 보람과 기쁨으로 교회가 밝아지고 활력이 넘쳤다. 기세를 몰아 그 해 가을, 경기남노회 청소년부 주최 찬양 대회에 출전해서 장려상을 받았고, 본교회 소속 노회 행사 예배에 자원과 초청을 받아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도 종종 감당한다.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은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자비로 악기를 배우는다면, 보컬 레슨도 받으면서 더 열심히 노회 행사 예배에 세워지기 위해 모두가 힘쓰고 있다. 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찬양을 사랑한다. 찬양 할 때 행복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다 응답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처럼, '예일 음악회'는 영적인 도전과 신앙의 삶을 가다듬는 '찬양부흥회'이자 축복의 시간이다.

이제 막 제4회를 마쳤는데, 벌써 제5회 예일 음악회가 기대되며 기다려진다고 강명구 목사는 설레는 마음을 전하였다. "끝으로 금번 예일음악회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이성호 목사(고향교회), 김진종 목사(신덕교회), 강명구 목사(예일장로교회)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안산자부 백운성 기자

한기보협, 제 68주년 6.25 상기 기념식

2부 제 13회 신학 세미나 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6월 25일(월)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1부 제 68주년 6.25 상기 기념식 예배를 드리고 2부 제13회 신학 세미나가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공동회장 조정근 목사의 예배인도로 시작되어 이규상 목사(예장(개혁)총회)가 기도장, 박지혜 목사(작은교회연합회장)가 성경봉독(렘 33:1~3), 마하나임 찬양단의 특송, 공동회장 진공열 목사(대전

지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독교대한자유교회 박정자 목사, 2. 한국교회와 혐의회(총회, 단체)를 위하여 문애숙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아울러 도강은 목사의 헌금송과 이안나 목사가 헌금기도를,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가 있은 후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가 광고를, 법인이사 이의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2부 제 13회 신학 세미나는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말씀

에 감사로 나선 예영수 목사(한국영성 연합회 총재)는 첫 강의에서 "영계의 이중 연계성(Dual Causality)" (영에서 일과 영계의 반응, 민 14:26-30)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열려지지 않는 신앙"(마 6:25-34)이란 주제로 두 번째 강의에 나선 백창준 목사(예장(합동정통)신학원장)는 1. 우리는 무엇을 열려지지 말아야 하는가? 2.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열려지지 말아야 하는가? 3.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열려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내일 일을 위하여 열려지지 않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삶을 갖자고 했다.

세 번째 강사로 나선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예장진리 총회)는 "예급의 10가지 이적과 종말 Exodus"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장 교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서 나오기까지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이집트에 행

남가주밀알선교단 주최 "밀알 연합 사랑의 캠프"

400여 명 참가 은혜와 교제 나눠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서 6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에서 "2018 서부지역 연합 사랑의 캠프"를 가졌다. 올해는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모인 약 400여 명의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누며 여러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특히 이번 캠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Tough Buddies: Reach to the summit"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찬식과 세족식, 각종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 김영길 원로목사(감사한인교회)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돼 하나님의 한량없

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Tough Buddies: Reach to the summit"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찬식과 세족식, 각종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 김영길 원로목사(감사한인교회)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돼 하나님의 한량없

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Tough Buddies: Reach to the summit"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찬식과 세족식, 각종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 김영길 원로목사(감사한인교회)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돼 하나님의 한량없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성회 일정

010-5255-7777
God Bless 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피종진 목사

2(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2(월)~3(화) 필리핀(Philippines) 팔라바시 Bethel Praise교회(허용철 선교사)
4(수)~5(목) 필리핀(Philippines) 팔라바시 원주인 목회자·선교사 MT
8(주) 저녁 여수 국제제일교회(김성진 목사) ☎(061)641-0097
12(목)~14(토) 음성 새예민순복음교회(장현주 목사) ☎010-2493-0017
15(주)~18(수)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욱순 목사) ☎(02)436-1777
16(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19(목)~21(토) 인천 국제순복음교회(김금숙 목사) ☎010-5689-0091
24(화) 오전 서울 미리암선교회(김선일 목사, 박은주 목사) ☎010-4737-0691
24(화) 오후 대구광역시 기독교연합회(회장 허영숙 국장)
주관 대구 중구·동구청 신우회
장소: 대구 문화교회(이재범 목사) ☎(053)423-7844
25(수)~28(토) 순천 생수는교회(강신형 목사) ☎010-8609-0691
30(월)~31(화) Nyskc Family Conference 대전 2018
주최: Nyskc World Mission (HQ: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장소: 건양대학교(논산 Campus)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18년도 교회표어:
오직 예수 (히 12:2)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담임목사: 허창범
신학박사·고려대학교 석사·예장총회 총회장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현주, 양연선
사무장: 공재용, 안종기, 허성준, 협동목사: 이형수

야생간판
주말예배: 오전 10:00, 오후 7:00
주일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새벽 5:00
금요예배: 저녁 8:00

관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 11번길 47(영우역) 2차 후문 앞, 수원중영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OK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H.P: 010-8753-7179
교회: (02)934-1232(대)

...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막 11:17)

예/배/간/내

대 예배 1부: 오전 9:30분, 2부: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8시
주일예배: 주일 오후 7시, 유채부 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주말예배: 주일 오후 11시,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청년·대학부 예배: 2부, 중·고등부: 오후 2시 30분, 실어 기 도 회: 매일 오후 10시,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잠양동)
☎: (02)934-1232

대한예수교장로회 번성교회

2018번성표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번성목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4(갈마동 338-22)
☎교회: 042) 523-3191 FAX: 523-3090
E-mail: pj2863@hanmail.net

■ 靑松 건강칼럼 (647) 고령인의 건강관리

고령인(高齡人) 건강 관리법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국제연합(UN)이 2015년에 재정립한 인간의 평생 연령 기준(age group classification)에 따르면 0-17세 미성년자(minor)에서 18-65세 청년(youth), 66-79세 중년(middle-aged), 80-99세 노년(elderly/senior)을 거친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長壽老人, long-lived elderly)이라 한다.

장수(長壽, longevity)란 생명체가 오래 사는 것을 뜻하며, 인간은 되도록 오래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대 수명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국가 간, 지역간 생활수준의 격차에 따라 평균수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 의료수준, 위생, 영양, 식생활, 운동, 생활양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에서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을 '전기 고령자(前期高齡者)', 그리고 75세부터는 '후기 고령자(後期高齡者)'라고 부른다. 한편 지난해 106세를 일기로 별세한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 1911-2017) 박사(의학)는 75세 이상을 '신노인(新老人)'이라고 부르고 '신노인회(新老人會)'를 조직하였다. 신노인회의 기본이념은 사람·인내·참조에 두고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다.

히노하라 박사의 '신노인(新老人) 건강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다. ▲많이 사탕하고,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죽는 시간까지 인생의 현역으로 산다는 자세를 갖자. ▲항상 창조하는 일을 하고 남을 위해 살자. ▲살기 어려운 것은 어느 세상에서나 똑같고 생각하자. ▲남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집에서 활발한 교제를 하자.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귀를 기울이자. ▲항상 걷는 습관을 지니고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자. ▲노년 건강의 최대 위협

은 낙상과 골절이므로 잘 구르는 연습을 하자. ▲몸에 좋은 심호흡과 복식호흡을 하자. ▲웃음으로 얼굴에 주름을 늘리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최근 노인을 두 단계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즉 65-74세를 '준(準)고령인'이라 하고, 75세 이상을 '고령인(高齡人)'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건강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75세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80세부터는 앓는 질환도 늘어난다. 따라서 건강관리도 75세 전·후는 서로 달라야 한다.

일본의 초고령화 현상은 인구 1억2700만명(2016년 10월 기준) 중 75세 이상 인구가 1700만 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7.3%이며, 2020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65-74세보다 많아 질 전망이다. 또한 노인 3명 중 2명이 혼자 또는 노인 케어센터만 생활하고 있다.

노년(老年)은 어차피 질병을 달고 사는 시기이므로 거주하는 곳에서 관리를 쉽게 해주는 것이 일본 의료정책의 핵심이다. 즉 의료의 목표가 질병 완치에서 질병 관리와 신체 기능 보존으로 질병과 싸우지 않고 질병과 동행하는 의료 체계를 만들고 있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완화를 도모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주환경과 의료 지원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노인·재활병원은 환자를 조기에 재활시키고 회복시켜서 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75세 이상이면 고혈당(高血糖)이라도 사망 위험은 낮은 편이므로 오히려 저(低)혈당을 주의해야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위험하며, 저체중(低體重)일수록 치매에 위험하므로 적정체중을 유지하여야 한다. 체질량지수(BMI)는 23-25(과체중)일 때 사망률이 낮으며, 식사는 육류(단백질)를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

혈압(血壓)은 나이가 많을수록 목표 혈압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즉, 중고령자는 140/90mmHg 미만으로 관리하지만, 고령자는 150/90 또는 160/10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혈압을 너무 강하게 관리하면 저혈압 등 부작용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 중 중국의 제지안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불순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itrosodimethylamine)'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고혈압 치료제는 약 2690품목에 달하며, 이 중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약 600개로 모두 전문 의약품이다.

독일 슬레스비히홀슈타인 대학병원 연구팀은 "목에 약간 불편할 정도로 넥타이를 단단하게 매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줄어든다"고 밝혔다. 즉, 넥타이가 목의 혈관을 압박해 뇌로 가는 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건강한 사람이 라면 문제가 없어도 정도이지만 고혈압 환자, 노인, 흡연자 등 이미 혈관의 혈액 공급량이 줄어든 사람이라면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혈당(血糖)은 중고령자는 중장년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지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좀 느슨하게 관리하여 저혈당 등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한다.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영양소 배분하기, 당(糖)지수(Glycemic Index)가 낮은 음식 먹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당화혈색소(정상 6.5% 이하)는 건강한 고령자는 6.5-7.0%, 최악한 고령자는 8.5% 이하, 매우 최악한 고령자는 9.0% 이하를 목표로 삼는다.

당화혈색소(HbA1c)란 적혈구의 혈액 속에 당이 결합된 형태로서 3개월간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 집안일, 목욕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무리 없이 하면 '건강한 고령자', 누군가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면 '최악한 고령자', 혼자서는 불가능하면 '매우 최악한 고령자'로 구분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75세 전후이다.

콜레스테롤(cholesterol)은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이며, 거의 모든 세포의 구성성분으로 특히 뇌, 척수, 신경조직 등에 많이 들어 있다.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중성지방 200mg/dl 미만, LDL(저밀도지방단백질) 콜레스테롤 130mg/dl 미만, HDL(고밀도지방단백질)콜레스테롤 40mg/dl 이상이면 적정수준으로 진단한다.

75세 이후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절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줄어들면 혈관 벽이 약해져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어 각종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신체균형이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고령인은 약간 과체중일 때 사망률이 낮다. 즉 75세 이후의 과체중은 신체 기능을 저하로부터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하므로, 체질량지수(BMI)는 23-25가 적당하다. 체중이 차체에 미치는 영향도 75세 미만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이 치매 위험을 높이지만, 75세 이후에는 저체중(低體重)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

낙상(落傷) 사고를 당하면 중고령인은 손목·팔·어깨 등 상체에 부상이 집중되지만, 고령인은 다리·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75세 이상 고령인은 근육량이 적고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손을 짚어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가 많아 고관절 골절로 이어진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骨多孔症)이 더욱 심해져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고관절(股關節) 골절은 치명적일 수 있다. 중양대 하용한 교수(정형외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고관절 골절환자 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동시에 가진 환자의 1년 사망률은 15.1%로 골근감소증이 없는 환자의 사망률인 7.8%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은 골다공증 치료와 근육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인들은 건강관리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글/靑松 朴明潤

(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 會 會 會, 대한보건협회 理事, 아시아기자협회 The Asia N는 理事) 지저스타임즈 건강칼럼 제공(지문) (청송 건강칼럼(647), 2018.7.14(토))

황성주 박사의 "3박자 건강" -76-

"잠언의 여성학"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 말로 하면 대표적인 현모양처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전형적인 직장여성으로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 마디로 비범한 여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을 재능이 뛰어난 여인이라 하지 않고 현숙한 여인 즉 슬기로운 여인이라 부르고 있다.

재능은 선천적인 면이 강한 선택적인 좁은 문이지만 지혜는 사실상 누구에게나 개방된 넓은 문이다. 이 현숙한 여인의 특성은 무엇일까?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여인의 삶을 해부해 보자. 한 마디로 잠언의 여인은 행동하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지만 구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로.

미의 개념에 "역동적인 원리"가 빠진다면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게으름은 질병이나 추함과 가까운 반면 부지런함은 건강과 아름다움의 이웃사촌이다.

고로 부지런한 여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닐까? 또한 여인은 자기관리에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 바쁜 스케줄 중에도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방식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은 멋있는 여인, 즉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꿀 줄 아는 슬기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여인은 허리와 팔을 강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건강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하지 못하면 부지런할 수 없는 법. 삶의 구석 구석에 나름대로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번득이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누구든지 부지런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

잠언의 여인은 인내의 법을 말하는 여인이며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어 탁월한 여인이다. 그리고 게으리 엄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바른 "고집"을 가진 여인이다. 인격이나 도덕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지고 대단한 용기를 가져야 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혼탁한 물결을 거슬러 흐르는 한 줄기 맑은 물줄기라고 할까.

아울러 잠언의 여인은 남편과 자녀에 "인정받는다" 여인이라는 특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여인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일부 여성 유명인사의 내면에는 마치 속진 강정처럼 "가정경영의 실패"라는 허탈감과 공허함에 대한 보상심리가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잠언의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즉 절대자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가는 겸손한 여인,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인 여인임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에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인생 행복인성도 (신 33:29절)



장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침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협력위원장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무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아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애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편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송 배 시간 안내 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리로 16길 11(신선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

2018학년도 후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회지도자전문과정·전도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 ◆개 강 : 2018년 9월 6일(목)
- ◆교육기간 : 2년 4학기
- ◆교육대상 : 교회지도자, 신학생, 목회자
- ◆수 강 료 : 45만원
- ◆연 락 처 : 각 주임교수에게 연락하시거나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지도자전문반 (010-3641-0685, 신영광 주임교수) 전도전문반 (010-5254-0599, 이항만 주임교수) 평생교육원 사무실 (031-770-7822~7823)

세계적인 성서전문가 유바울 목사 초청 세미나



유바울 목사
- University of the holy land. Biblical geography(Ph.D.cand)
- 이스라엘 공간기대(3년제 거주, 기대도 2008)
- 이스라엘 전역 도보 기도순회 중(일행 2,600기리)
- 저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도보 이스라엘 아라바의 아내 도보 이스라엘

- 주 제 : 성경의 중요한 길
-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전10시~저녁9시
- 교재구입 : 10,000원, 당일 성지책 구입가능, 종식제공
- 장소(인천본원) : 글로벌아교회(인천시청지하철역 3분 출구 20미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119, 건영빌딩 2층)
- 연락처 : 010-3641-0685, 선착순 100명 접수받음
- 강의내용 : 오전 - 아브라함의 길
오후 - 다윗의 도피 경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저녁 - 이스라엘의 중요한 길들, 이스라엘의 동·식물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노원구 교회매매

- 대지. 95평 건평. 250평
- 용도. 1-3층
- 임대료 월 450만원
- 4-5층 교회. 교육관
- 금액. 24억원
- 대출. 있음
- 위치. 서울 노원구 하계동

☎ 010-2868-7302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 김성룡



상임목사 박명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역사본, 6.25전쟁 68주년 상기사식

북한 공산정권과 문재인 중북정권 향해 지탄의 목소리 높여



6.25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를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회장 김영구 목사, 이하 역사본)는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 데이라이트(Day Light) 양로센터에서 6.25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아 "고맙습니다! 6.25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신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6.25동란 68주년 상기사식"이란 주제로 행사를 가졌다.

이날 데이라이트 양로센터에는 6.25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LA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등 약 300여 명의 하객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북한 공산정권에 대한 규탄과 현 한국 문재인 중북 정권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본 김순희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순으로 진행

됐고, 특별히 <6.25 노래>를 부를 때는 행사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역사본 고문 조선환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북한이 저지른 6.25 동란의 만행에 왜곡시키는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은 6.25를 내전, 문재인은 내전이냐 국지전, 김대중은 실패한 통일전쟁, 전교조는 6.25는 남침 아니며 전쟁의 원흉은 미국과 친미라는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세계가 다 아는 팩트까지도 뒤바꾸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6.25전쟁에서 고귀한 목숨을 희생한 많은 호국용사들과 이 자리에 계신 참전자 여러분들의 피흘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결코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6.25전쟁을 상기시켰다.

회장 김영구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

는 것이 아니다. 6.25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아무런 댓가 없이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기생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호시탐탐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불순한 정권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다음은 김영구 목사의 <메시지> 전문이다.

6.25전쟁 68주년 기억식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파란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살리려고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시다가 너무 아픈 자식 때문에 피난을 포기해서 1년 넘게 김일성의 공산당들의 핍박을 견디신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화차 밖 난간에 매달리셔서 아이가 떨어질

까봐 기차 난간에 자신과 자식을 함께 묶고, 불어오는 엄동설한의 바람을 막으려고 자식을 감싸셨던 부모님.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1980년에 강원도 철원 근처 산속 작은 산소 앞에 한 중년의 미국분과 30대 정도의 한국 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한국 분은 한국말을 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계셨던 미국분이 한국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51년 겨울에 추위에 지친 몸을 가누며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 속에서 꿈틀거리던 것이 있어서 눈을 피해쳐보니 벌거벗은 여성분과 어른의 누더기 옷으로 감싸져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여성분은 이미 숨을 거두셨는데, 아이는 다행히 살아 있었다. 아마 그 아이는 숨을 거두신 여성분의 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이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분을 그 자리에 묻어 드리고, 살아 있는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바로 너이고, 이 곳에 묻혀 있는 분이 바로 너의 어머니이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서 너에게 덮어주고, 그렇게 얼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들은 90대 한국 분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옷을 하나 둘 벗어서 산소에 덮어 드리며, 서투른 한국말로,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하며 어머니 목에 몸을 덮으며 할 수 없는 눈물로 묘지를 적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 68주년 기억식에 오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이런 참혹한 전쟁 속에서 자식들을, 더 나아가 김일성 괴뢰 집단이 일으킨 전쟁의 상처를 마음으로, 몸으로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 계신 다른 부모님들은 전쟁 후에 대한민국의 가난과 활벗을 속에서 나라를 일구어 내신 분들입니다. 새마을 운동과 월남전 참전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에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잘못된 일에 대하여 인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요구에 같은 민족이라면 지난날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인간의 달을 쓴 자들의 인지상정이건만, 잘못에 대한 지적도, 자신들이 벌였던 일들에 대하여 용서도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심히 통탄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일평생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서 어릴 때부터 김일성을 신봉하였던 자들이 버젓이 소리치고 있는 나라에 이런 가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6.25전쟁 때 대구 근처에 있는 불안동이란 조그마한 동네에서 참혹한 전투가 있었는데, 일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전투였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희생을 치르며 불안동을 지켜 냈다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 졌을 것입니다.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한 고을을 지켜 내기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마을들이 모여서 지금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형성된 것을 잊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불안동이고, 이름도 모르는 작은 고을일 것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먼저 바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동의 일반 명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김일성 일가, 현재의 김정연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600만의 학살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독일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리 아프지만 용서는 하였지만 잊지 않고 기억은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민족의 참상인 6.25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이런 아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68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에서 우리들의 선조들은 이렇게 나라를 지켜 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6.25 전쟁에 대하여 기억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손주분들에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저의 가정에서 고을을 불안동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 하나가 이름도 모르는 68년 전에 한국의 작은 고을입니다.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수많은 고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룬 것 같이 우리는 우리들이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기생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호시탐탐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불순한 정권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안동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신 일반 명의 자유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다시 한 번 부모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사랑의 열매 봉사단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냉면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냉면 데이..."

경북북부 제 3교도소(서수원 소장)는 지난 7월10일 뜻있는 행사가 진행되어 전 수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사였다.

서수원 소장은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냉면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에 사랑을 전하여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도관으로

서 참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에 서수원 소장은 경북북부 제 3교도소측 부임 받아 왔을 때, 교정위원 이기학 목사는 '수용자들에게 냉면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 해 달라'고 하자 '아주 쾌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승낙을 하고, 이번 냉면데이에는 창녕 주린교회(정석중 목사), 창녕 창녕선교교회(노광수 목사), 창원 애향교회(홍춘기 목사)와 창

녕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노고에 감사하여 교도소 측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분들 중 주린교회 김준택 성도, 이순복 권사부부, 김종일 권사, 애향교회에서 백인옥 집사, 우감식 집사, 사랑의 열매 봉사단에서 김경순, 김복희, 이재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교도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범죄로 인하여 수감생활을 하

고 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면 과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범죄의 삶을 살았을까. 이제라도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여 수용자들이 출소 후 우리 곁에서 빠르게 살도록 돕는 것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주님은 육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기 전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포항지사장 이기학 기자

그때, 그 시절 금곡교회란 모판이 자랄 때

고향! 하면 그리움, 그리움! 하면 고향을 떠올리게 된다. 말만 들어도 정겨움으로 다가오는 그리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 금곡교회 신우회를 소개 한다. 금곡교회는 경북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에 소재하고 있다. 1970년대 20대 패기 넘쳤던 남, 녀 청년들이 이제는 육신이 넘어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조직자들이 되어 지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던 중 믿음의 은사인 최승은 목사를 찾아 뵈고자 2018년 7월10일 경북 상주로 달려갔다

40년의 세월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40여 년 전 금곡교회 전도사님으로 시무하셨던 세월은 80세 원로 목사님이 되어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모습이다. 세월의 흐름으로 다들 어른이 되어 같이 늙어가는 일상이니 스승이 제자를, 또 선, 후배 간에 서로의 얼굴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열심 은혜로 오늘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다. 박수영 목사 인도로 시작하며 최철수 장로 기도, 김홍중 목사는 사



무열상 7장12절 말씀 중심으로 "예 베네셀 하나님"의 제목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우신 하나님, 현재부터 미래까지 함께하시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광고 시간에 신우회 회장 및 총무 김복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원들의 적극적 협력으로 귀한 모임을 가지게 됨을 감사했다. 이어 추억의 현장 한마당에서는 스승과 제자 선, 후배 간 옛 추억을 회상하며 그 때 그 시절이 좋

았고 행복했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의 꽃을 활짝 피웠다. 금곡교회 신우회는 삭막한 이 시대에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화제가 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역사적 모임을 모두 다함께 설레는 마음과 감동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만남 때는 더 성숙하고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각자 섬기는 일터와 목양지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말씀 대구지사장 박수영 기자

맛있는 부침개 나누며 전도에 힘쓰는 권사들!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부침개 전도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 서

새생명오아시스 교회(담임 김일형 목사) 전도부(부침개 전도 담당 서영완 장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소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뒷뜰에서 부침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침개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부침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가볍게 부처주는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부침개를 대접하여 커뮤니티를 섬기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신앙생활 중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침개 전도'는 2017년 3월 첫

째 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박영준 장로는 부침개 전도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교회 장소(갤러리)가 마켓 맞은편"이 LA코리타운 내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역의 특징은 "오신 분들에게 절대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지 않고 전도지와 주보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먼저 물어보면 그 때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다.



또 'TO-GO'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침개와 함께 전도지도 함께 포장해줌으로써 자발적으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했다.

부침개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 이들이 다시 교회를 찾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사역을 통해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들도 있다고 한다.

한편, 이 사역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부침개를 부치는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봉사로 진행되며 부침개와 함께 김해미(머리스타) 성도가 정성스럽게 내린 핸드드립 커피도 같이 무료로 제공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새생명오아시스교회를 방문하면 누구나 맛있는 부침개와 향기 좋은 커피를 무료로 즐기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술집과 당구장,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가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외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부터 왜 외면을 당하고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예매당이 거음이 담긴 봉사로 진행되며 부침개와 함께 김해미(머리스타) 성도가 정성스럽게 내린 핸드드립 커피도 같이 무료로 제공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새생명오아시스교회를 방문하면 누구나 맛있는 부침개와 향기 좋은 커피를 무료로 즐기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술집과 당구장,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가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오면 건물 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세상에 환영받고 존경을 받아도 부족할 것이 교회인데 어쩌다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불신자들 때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원인과 책임은 모두가 먼저 믿은 우리 기독교신자들에게 있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보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라 본다. 빛으로 보이지 않았고 소름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흥과 성장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하지만 회개가 먼저이고 안보라 통일을 위한 기도보다 회개가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39)

사도요한이 바라본 천상 교회의 광경

(지난호 이어서)

그러므로 9절에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 하셨습니다... (지나호 이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신다는 것으로만 고정되기 쉽습니다... (지나호 이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는 모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호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십사만 사천 명이 어떻게 뽑히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일만 이천 명씩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총수가 십사만 사천 명입니다... (지나호 이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십사만 사천 명이 무엇으로 풀이하시나요? 십사만 사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총수라고 말합니다... (지나호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는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본문 9-10절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지나호 이어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호 이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책을 취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주님 안에서 7년 환란이 시작돼서 사건이 단계적으로 전개될 것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나호 이어서)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구속)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땅에서 통치하게 해 주심이 너무 기쁩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나호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이 문자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나호 이어서)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 후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지나호 이어서)

11절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민이요 천천이라... (지나호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네 생물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나호 이어서)

(다음호에 계속)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23)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지나호 이어서) 또 일곱 촛대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마지막 때 진노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일곱 재앙의 일곱 대접을 상징하기도 한다... (지나호 이어서)

3) 분향단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지나호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공의 앞에 100% 순종하며 하늘나라의 법도를 잘 배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지나호 이어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예표이며 인간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나호 이어서)

엘 민족에게 40년 동안이나 성막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오늘날에 와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는가! 이 성막은 천국에 이르는 5단계의 관문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나호 이어서)

첫째 회막문 다리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문으로서 오직 이 문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다... (지나호 이어서)

둘째는 '회개의 다리'를 건너 들어가는 성막물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는 것이다... (지나호 이어서)

셋째는 '번제단의 다리'이다.

이 번제단을 성소에 들어가기 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기구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 4:23)

다섯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의 다리'이다.

성소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의 혼인 잔치에 초청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지나호 이어서)

이 성막은 천국에 이르는 5단계의 관문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나호 이어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지나호 이어서)

◆성막(성소)의 원리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이 구원은 어느 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나호 이어서)

즉 각 마디의 지체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 하나만으로 온몸이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도 입술로 '믿습니다'라고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 (지나호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예배안내.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예배안내.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예배안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주일예배안내.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예배안내.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예배안내.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예배안내.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예배안내. 경기도 시흥시 검마위로 52-1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예배안내.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예배안내.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임마누엘교회. 주일예배안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특약칼럼 -20-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장대위에 단 늦땀을 바라보라

조영만 목사
인천시교회
JTNTV운영이사



(지난호 이어서)
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물)을 통해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성령님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는 영을 받으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물)을 통해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성령님으로 인해 영을 받으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대한 계명, 여섯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때 부자 청년의 고백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막 10:20)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계명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감히 이와 같은 고백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부자 청년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막 10:21).
이 한 가지의 질문을 통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막 10:22). 우리에게 한 가지나 그 이상의 부족함이 있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는 죄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먼저 의뢰하고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였습니 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고후 12:10).
우리도 이제 자신의 부족함이나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한두 가지나 그 이상의 죄악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 됨을 깨닫고 자기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함으로써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의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십시오!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죄악을 기뻐하십시오! 이것들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죽은 자와 같음을 발견하고 더 이상의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만이 승리와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15.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남기신 이유
마가복음 10: 17~27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을 봅니다. 이 질문의 근원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와에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고 하는 유혹과 같은 것으로 '네 스스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게 하는 자아를 부추기는 유혹의 발로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영생과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믿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계명 중에 사람에게

16. 장대위에 단 늦땀을 바라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루하고 물과 식물이 없는 불만족의 광야 생활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봅니다(민 21:5~6). 이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풀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늦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늦 땀을 쳐다 본즉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민 21:7~9).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무한경쟁시대 미래 교육방향 제시5)

(지난호 이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
이제부터는 정부나 혹은 공공기관은 역사교육에 중요함을 심각하게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수학이나 영어는 국가나, 혹은 정부 어떤 기관이 가르치지 않아도 외부인, 혹은 외부환경 즉, 외국 가서도 얼마든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이미 지금도 어학연수 등을 통해 언어교육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고 있다. 하지만 역사교육을 정부나 국가가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 연수나 유학을 가서 한국역사를 배울 수 있는가 말이다. 제 나라 역사를 제 나라에서 중시하여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앞서 예를 들었던 신재호 선생의 말씀과 같이 역사를 잊는 민족이 된다.

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분단의 아픔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GDP(국내총생산)세계10위권에 진입한 국가로서 201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4개국 중 자살률, 이혼증가율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와 사회갈등지수 등 50여개 분야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에 투자해야하고 중요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동시에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다(지나)인성교회 담임목사
JTNTV 상임이사

인성(道)교육의 방향과 목표
오늘날 우리사회는 효과 인성교육의 부족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에서 지나친 지식교육의 강조로 인해 가정과 학교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인성교육이 부실한 실정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때 이제 부모님들 모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하는 주님이 4.5대 중년층에서 들려오고 있다.
효의 실증은 부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라는 패륜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고령사회에 노인들에 대한 불손과 무관심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효가 더 이상 실증되기 전에 서둘러 효 인성교육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해 초, 중, 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가정사회의 최고인 윤리로서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할 근본 가치다.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켜온 사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져 왔다.

인성(道)교육의 방향과 목표
오늘날 우리사회는 효과 인성교육의 부족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에서 지나친 지식교육의 강조로 인해 가정과 학교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인성교육이 부실한 실정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때 이제 부모님들 모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하는 주님이 4.5대 중년층에서 들려오고 있다.
효의 실증은 부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라는 패륜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고령사회에 노인들에 대한 불손과 무관심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효가 더 이상 실증되기 전에 서둘러 효 인성교육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해 초, 중, 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가정사회의 최고인 윤리로서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할 근본 가치다.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켜온 사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시대와 이념에 따라 효의 개념이 다소 변화되기는 했지만 부모님을 섬긴다는 본질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효사상이 근래에 와서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문화의 팽배로 실종될 위기에 있다. 효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고 그에 따라 효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대적인 효의 방향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효행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서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효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 의존적 관계이며 자녀보다 부모다움(본보기)이 먼저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가정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목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격체 그리고 정신적 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바른 가치관과 효, 예절,겸양, 옹고 그름에 대한 인식, 참용성, 공동체 의식 및 규칙준수와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인성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그리고 현대적인 효의 방향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효행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서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효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 의존적 관계이며 자녀보다 부모다움(본보기)이 먼저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가정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목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격체 그리고 정신적 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바른 가치관과 효, 예절,겸양, 옹고 그름에 대한 인식, 참용성, 공동체 의식 및 규칙준수와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게 가두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성(道)교육에 대한 비평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가치는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8가지 주제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자라는 취지가 있다고 본다. 대가족 제도였던 과거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정성껏 모시는 상의 위계가 있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로 계속되는 저 출산,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구성원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 효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절실한 때이다. 인성교육의 부재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문제까지 확대 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학벌만능주의 만연으로 인한 지식교육의 강조와 학교교육이 마치 교육의 전부인양 오인되고 있고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학교 또는 사회구성원 간에 협조와 배려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결국 사회체계의 존립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어른이 없다. 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어른이 사회생활의 안내자로서 갖춰야할 정신적 행동적으로 모든 것을 따라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성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하고 소통과 대화로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승화시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지니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 점점 퇴색되어가는 효 사상을 일으켜 세우 효가 넘치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효와 인성교육에 꾸준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흥성군 흥성을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원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델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냥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록원장-1급 ~3급차 환원)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시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민국 중앙이 뚫렸다!(DMZ 주둔지) 철수’

‘북한’은 판문점 선언 어기고 핵 시설 증강 및 대형 잠수함 건조 중인데...

국민들은 심각성 몰라... 대한민국 어찌나...

지난 6일,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지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개혁 2.0에 따라 소규모 부대를 대대급 이상으로 통·폐합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방부대를 모두 철수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이렇게 될 경우, 해군 공군만 신경쓰면 될 것을 보병 그리고 탱크가 그대로 남하할 수 있는 길을 그대로 열어주는 꼴이 된다. 더군다나 4.27 판문점 선언을 어긴 북한에게 이러한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날 이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실무자들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DMZ일대 평화지대화를 가정한 부대배치안을 보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을 정상 가동하는 상황에서 섰부른 군사적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 정도가 아니다. 아직 작군인 북한에게 그대로 남한 땅을 가져라는 일종의 손짓이 되는 셈이다. 북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UFG) 등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취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애초 국방부가 계획한 국방개혁안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방개혁안대로라면 대대급 이상 2035개 부대는 318개, 대대급 이상 주둔지 1031개는 237개를 줄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부대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만 3조원



에 달한다. 국방부는 부대개편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과 미활용 주둔지를 매각할 경우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대 내 건물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물을 보수할 경우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대에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평화를 거부할 사람은 맨발해선 없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을 이번엔 버리기로 할 작정이 듯하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남북 간 DMZ일대 평화지대화 조성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안은 모두 뒤집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K-9차주포가 배치된 포병부대 등 알파지역 부대까지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알파 지역에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안보에 타격이 큰 심각한 결정이다.

남북관계 전적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물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보류한 사업비는 2189억원이다. 추가로 2020년 이후 GOP부터 브라보 지역까지 신축공사 사업비 4268억원을 보류할 경우 6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김진형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둔지 철수는 말이 안 된다”면서 “평화모드가 이어져도 군이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넘어 큰일이다.



“대한민국 청년이 불행하다”... 집값 내려야

“집이라도 있어야 장가를 가죠!” “집도 없는 데 시집가서 모해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청년들이 불행하다”, “집값 내려야 한다”고 조사에 응답했다. 이 모든 책임은 첫째가 정부라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 5~6월 주최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에서 보사연 이상립 연구위원과 유재연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불행하다(매우 불행+조금 불행)’는 응답이 73.4%

나 됐다. ‘행복하다(조금 행복+매우 행복)’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52%는 ‘불행하다’고, 48%는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대상을 노인으로 바꾼 같은 질문에 ‘불행하다’는 답변이 59.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행복보다는 불행 쪽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주거문제와 관련해 집값 하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하락해야 한다(대폭 하락+소폭 하락)’는 응답이 69.8%에 달했다. ‘유지되어야 한다’는 22.5%, ‘상승해야 한다(소폭 상승+대폭 상승)’는 7.7%에 불과했다. 87.3%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나라에서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5.8%가 정부를 첫순으로 꼽았다. 이어

남편 17.5%, 기업 15.7%, 지역사회 13.6% 등의 순이었다. 아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답한 비율은 7.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중순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2.2%포인트다. 출처 : (http://www.jayoo.co.kr) 제공 rsnews@nate.com

SFnewsfeed.us 지는 7월 4일 “Korean Community Warns Trump, ‘Don’t Be Deceived By Kim Jong Un!’”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오히려 군사긴장이 감돌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을 한국과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세히 보도했다.

“김정은에 속지 마라!”

미주한인 사회, 트럼프에 경고



[시사] “김정은에 속지 마라!” 미주한인 사회, 트럼프에 경고 SFnewsfeed.us 지, 미연방 의원 군사외교의원장 Edward Royce 의원의 논평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교계 및 한국의 대변에국당 대표 조원진의원과의 특별대담도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국방의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극악한 인권탄압과 함께,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을 친중, 친북 반미등의

출발세력들을 동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위해,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인 탄핵, 불법구속, 불법재판

을 통해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K-9차주포가 배치된 포병부대 등 알파지역 부대까지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알파 지역에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안보에 타격이 큰 심각한 결정이다. 남북관계 전적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물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보류한 사업비는 2189억원이다. 추가로 2020년 이후 GOP부터 브라보 지역까지 신축공사 사업비 4268억원을 보류할 경우 6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김진형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둔지 철수는 말이 안 된다”면서 “평화모드가 이어져도 군이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넘어 큰일이다.



“원주민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메리칸원주민선교회 대표 강부웅 목사 호소

북미와 남미지역 아메리칸 원주민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강부웅 목사(아메리칸원주민선교회 대표)와 선교팀이 지난 달 23일(토)~25일(월) 2박 3일간 멕시코 원주민 선교집회를 마치고 귀국했다. 강부웅 목사 선교팀은 멕시코 원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산악지대인 마네아데로(Maneadero) 지역을 방문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원주민선교회(담당 김현수 선교사)와 공동 사역을 펼쳤다.



이번 원주민 선교집회는 가난과 무지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마네아데로 지역 원주민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초청해 뜨거운 찬양과 말씀 속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2일간의 집회를 은혜롭게 마쳤다. 특별히 집회기간 중에는 원주민 집회소식을 듣고 예상치 못

할 정도로 인근 각처의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와 준비해간 간식도넛, 음료수, 옷가지, 칫솔 등이 모자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선교회 대표 강부웅 목사는 “부와 번영을 넘어 사치와 타락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과 많은 인근 도시를 볼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원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소망과 축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이다. 아메리칸원주민 선교와 후원을 돕는 기도와 선교의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함께 원주민 사역을 감당할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

절간이 찬송 부르는 새생명기도원으로 변해

절 주지에서 하나님 콜링 받은 김새천 원장의 삶과 신앙



절 주지로 승려생활을 하던 김새천(62·새생명기도원장·본명 김희철)씨가 최근 짧은 시절 믿었던 기독교신앙을 회복하고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던 사찰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원으로 개조했다. 음식집을 꾸미러 운영해 부를 축적했으나 도의원 선거에 3번이나 낙선한 김씨는 교회 출석을 접고 산으로 올라갔다. 잊따른 낙선에 충격이 컸던 것이다. 역학공부를 하고 불교교목도 받았다. 하지만 허무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다행히 뒤늦게 다시 찾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되찾았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양주 새생명기도원에서 만난 그는 교인들과 찬송을 부르고 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지난해 말 기독교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다가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며 “신학교에도 입학했다. 앞으로 더 깊이 기독교신학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중반에 그는 지인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했다. 세례를 받고 봉사활동을 했다. 신학교 공부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선거에 연거푸 떨어지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도 사라졌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내가 왜 선거에 떨어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는 누구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주와 관상 책을 구입했다. 불교 관련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2003

년 철학원을 차렸고 2005년 머리를 깎고 이듬해 승려가 됐다. 그는 대한불교 조계종(도생) 소속으로 12년간 승려생활을 했다. ‘도광’이란 법명을 받았다. 토정비결을 봐주고 작명, 예언기도, 상담 등을 해주는 것이 그의 하루일과였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사주팔자 잘 보는 승려로 유명세를 떨쳤다.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에서 ‘보장사’라는 절을 운영했다. 그런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다. “지난해 11월 갑작스레 세례 받은 교회의 목사님 꿈에 나타났어요. 무심코 지나쳤는데 한 달 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기독교인이 제게 ‘스님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데 꼭 목사님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결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느낌이 묘하더군요.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라는 음성 이 들렸어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니다.” 그는 담뱃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출석했다.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다메색의 만남’ 캠프에 참석, 큰 은혜를 받았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 중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어느 때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며 기

독교에 귀의한 소감을 밝혔다. 불교세계에 대한 체험을 묻자, 그는 “15년 넘게 수행을 했지만 진리나 구원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은 나이지만 기독교에 귀의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한다”고 환히 웃었다. “사찰 주지를 하면서 가슴아팠던 일은 기복신앙을 이용해 복제를 행하는 일이었다. 복을 주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승려로 임인 양주경찰서 경승위원회 총무를 맡기도 했던 그는 불교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절을 다시 복구하라” “불상을 치우지 말라” “장승은 왜 잘랐느냐”는 협박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예수사랑을 몸소 실천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생각한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읽는다. 간증집회도 인도한다. 목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다메색의 만남 캠프’ 운영자인 장여호수(김포 초대신앙교회)목사는 “김씨가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겠다고 해 기뻐다”며 “절주자인 승려가 기독교에 귀하고 절을 기도원으로 만든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김씨가 한국교회에서 귀한 활동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국민일보]

| 목사코너 174 |

성령께서 바울에게 될 일을 말하다

(행21:10-15)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전례 총회총장/지저타임즈 부이사장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에게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자는 주님이 세우시는 몸 된 교회에 사도나 선지자, 복음전도사나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그 중에 속한 자요, 예루살렘 교회 소속임을 행 11:27-28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래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에서 구호금을 미리미리 저축, 예루살렘에 보내고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됨도 이 아가보 예언으로 인한 것이요, 그가 왜 바울에게 왔는가? 이는 주님이 그를 바울의 장차 될 일을 예언케 하려고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장차 결박되고 로마에 보내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행23:11, 행27:24)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진리의 영을 삼고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지요(요 16:13). 주 재림 전후, 환란 날 될 일과 또한 각자 우리 개인적으로 환란 날 겪게 될 일들도 알게 해 주시리라. 특히 두 증인 즉 두 선지자인 환란 날 사역할 144,000의 남녀종들은 그 때에 크게 선지자로서 예언할 것입니다.

아가보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대언하며 바울의 띠로 자기 손발을 묶어 보이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방인 사도인 바울로 증거하는 예수, 특히 할례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것 등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없애려 버리고 있는 그 당시 실정에도 맞는 말씀이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과 그곳의 동지들은 심히 슬퍼 울었다고 했습니다. 더하여 바울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기를 간청했습니다. 성령으로 아가보 통해 예언한 것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한 것인가? 아니면 미리 마음에 단단히 준비해 하여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에 결박당하려 가게 하기 위함인가?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가보로 그가 더욱 오랫동안 사도로서 일하기를 원했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지요. 이는 골마 16:22-23 말씀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내게 걸림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여러분 모두 장차 이와 똑같은 경우를 맞게 될 터인데 '우리는 어찌 행하여야 하는가?'의 답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답하기를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으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칼빈의 설교관(說教觀) 3

〈지년호 이어서〉
2) 성례전(聖禮典)의 신비와 동일(同一)한 신비로운 설교(說教)

그러나 칼빈은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칼빈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동안 성령께서 계속 감동할 여지가 있어야 함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 칼빈은 (답후 1장 9,10절)의 설교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거나 역사함이 없이는 또는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인간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러므로 청중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조명과 믿음의 수반없는 말씀의 성실한 설교일지라도 청중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알

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다"는 성령(聖靈)의 내적(內的) 사역(事役)을 강조하는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설교는 성령의 관능으로써만 능력을 부여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외적인 말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효력도 청중에게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의 능력이 말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하시고 구주이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설교자는 설교에 앞서 기도로서 준비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설교가 그 자체로서는 듣는 이들을 변화시킬 아무런 힘도 없음을 인식했다.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의 은사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읽을 수 없다는 것을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회심의 역사, 구

속과 영성의 기쁨이 죄인들의 영혼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설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관능의 결과인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칼빈은 성령의 감동을 설교의 효력에 결정적 요인으로 말했다.

그러나 칼빈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과 동등하다"고 주장한 무터와는 달랐다. 또한 쾰리나나 재침례파와 같이 설교를 단순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로 보지도 않았다. 칼빈은 성경을 성령의 독특한 영감을 통해 기록된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으로 믿었다. 그리고 설교(說教)는 기록된 말씀을 풀어 해석(解釋)하는 것으로서만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미가서 강해(講解)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교훈들이 성경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조심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강해(講解)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교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을 첨가하면, 그것이 아무리 미세하고 의미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들과 복음서들을 통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을 하나도 더 해서 안 됩니다. 설교자의 임무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더 깊게 뿌리내리도록 충분한 말씀 강해(講解)를 제시(提示)하는 것입니다. 모든 강론(講論)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꾸며 낸 것은 어느 것이든 더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자신



서명범 목사
예수배리처처 담임목사

들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틀림없는 진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013:5-8 (칼빈의 미가서 설교 중에서)) 칼빈은 이렇게 객관적 계시로서의 기록된 성경(聖經)과 기록된 성경을 풀어 해석(解釋)하며 적용(適用)하는 설교(說教)와는 구별(區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령께서 설교자와 청중들을 다 감동하실 때만이 설교가 구속적(救贖的)인 효과를 가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객관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과 같은 권위로 임하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다.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22)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

〈지년호 이어서〉

모세의 율법에도 똑같은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속에 빠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아야'(행 5:42) 한다고 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더욱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는 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 아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야'(답전 6:2) 한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지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과 모델이 되므로, 직접 가르치고 전하므로, 권면하고 인도하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성교육이란 영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은 모든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영성교육의 실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영성교육은 매 순

간 실전을 치르고 있는 흥미진진한 학습이며 훈련이다. 영성교육의 방법과 매체는 다양하며 삶의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성교육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발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배우고 지키게 하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이 땅에서 온전하고 진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여호와와 뜻, 주의 뜻, 지존자의 뜻, 정하신 뜻'이란 용어가 자주 나온다(시 143:10; 잠 19:21). '뜻', '의도'라는 말에는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하나님께서도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고 인간의 뜻만을 추구하려는 것은 모순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해왔고 그것을 자녀들과 이웃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창세기 8:21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달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하게 변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진 타락한 본성의 인간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사명은 온 인류의 과제이지만 일차적 책임은 아무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질적 삶의 변화를 향한 인간 내면의 요구와 온전하고도 진정한 삶을 향한 교육의 필요성이 본 연구의 작성의 동기이다.

기독교적 삶의 변화를 위한 영성교육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영성교



홍효표 목사

육을 위한 커리큘럼 부재에 있다. 영성교육은 그 마음이 악하게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 당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연의 온전하고도 본질적인 선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인간 구성 요소인 지성, 감성, 의지, 행동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 뿐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인 부분이 간파된 교육은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는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인간은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성교육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뜻에 맞게 인간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WS **WRTS**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 모집 요강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영의 졸업장 수여함.

◆ **과정수료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정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찬양, 율동, 위업, 한국무용
수업요일: 매주 월, 수, 금
장소: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 계 로 신 학 술 원 · 꾸 미 오 리 기 독 무 용 신 학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나(골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2층)
기도원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2층)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외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새생명여민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2018 동여
성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매일 오후 8:00
- 토요일분자교육: 오후 7:00
- 청년/학생부: 통합예배
-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에녹부흥신학 모집

설립자/대표 이사장 학장/이사 이 사 부학장/이 사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이요성 목사 임순학 박사 장기남 목사 김영록 박사 김영애 전도사

교 수 진

곽영민 교수, 임순학 교수, 김영록 교수, 김선우 교수, 박경자 교수, 김성기 교수, 최동준 교수, 오성춘 교수, 윤동훈 교수, 김정우 교수, 윤주만 교수, 최혜숙 교수, 이선한 교수, 김지연 교수

과정	수업일	학제
기독교예배 과정	매주 목, 금, 토	2년 6학기
신학부 과정	매주 목, 금, 토	3년 9학기
목회대학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2년 6학기
신학연구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3년 9학기
학술원	매주 토	1년 3학기
찬양치유교실	매주 목	2년 6학기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교단 가입 환영

저희 에녹부흥신학은 "교육은 병행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정통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교육과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총)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녹부흥회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식 회원 기관이며, 본 협의회로부터 신학 교육을 인증 받았습니니다. *총회장 권영민 목사는 본 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및 신학위원 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흥사 및 영성 사역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국제에녹부흥사'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인천)등불교회, · 주소: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웨신총회 2018 전국 목회자 하계수련회 개최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1호 염산교회 전학 맛, 흥, 영성 회복을 위한 노회별 투어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지난 6월 25일(월)-27일(수) 2박3일간 전북 부안군 번산면 도향 해변길 73 '해나무 가족호텔'에서 '삶의 원천이신 나의 목자'란 주제로 2018년도 목회자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25일 오후 5시에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오상열 목사의 인도로 회의록서기 임예성 목사가 기도, 회계 정순욱 목사가 성경봉독(시23:1-6)하고, 김미라 목사와 호남노회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내 인생의 힘의 원천이신 목자"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후 저녁 식사에 이은 특강 강사는 허창범 목사가 '자기 정체성 회복한 목회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의를 했으며, 성용구 목사가 되어야 함과 구속사적 성경해석을 기반으로 목회자가 설교에서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로고스의 멋짐도 중요하지만 선한 양심이 청결한 목회자의 마음인 에토스가 중심이 되어야 함과 구속사적 성경해석을 기반으로 설교가 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수련회 둘째 날인 26일 아침에는 동서노회장 이병만 목사의 인도로 강동노회장 허진 목사의 기도와 서울노회장 김정욱 목사가 요한복음 15장 1-12절을 봉독한 후 서기 박정균 목사가 "열매를 맺으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원로이자 자문위원 이규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진 특강 강사 정순욱 박사는 "4차 산업 시대의 목회자 리더십 혁명"의 제목으로 한국 교회에서 보여지는 목회자의 많은 고충과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사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영성과 말씀이 균형 잡힌 자기개발과 리더십의 원리 그리고 이 원리를 응용해서 현실에 적용하여 훈련되고, 실천되어 목회 현장에 부흥과 자신의 능력이 새롭게 분출되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이 시대에 요구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강에 이어 맛, 흥, 영성의 주제로 떠난 노회별 지역 투어가 있었다. 첫째, 맛으로 떠난 호남노회, 중부노회 등은 정정해역인 선유도 근처까지 이동하였다. "선유8경"의 섬 선유도는 신선이 노니는 섬이란 뜻을 지닌 아름다운 섬이었으나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의 무너도, 선유도, 장자도가 지난해 말 새로운 다리로 연결되면서 '육지'가 됐다.

섬이지만 더 이상 섬이 아닌 이곳 선유도에서 정이 넘치는 호남의 인심이 가득 담긴 신선한 회를 먹으며 노회의 단합과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보냈다. 둘째, 흥으로 떠난 연합노회 등은 부안지역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해수를 이용한 해수욕으로 흥겨운 활력을 만끽하였다. 해수에는 신선대사에 꼭 필요한 100여 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과 부인병과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건강까지 챙기는 실속 있는 투어의 시간을 가졌다.

셋째, 동서노회, 영남노회, 서울노회, 사무직원 등 영성팀은 영광군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1호" 염산교회를 방문했다. 염산교회는 6.25동란 때 공산당들이 교회당을 불지르고 교인들을 바닷가 수문통에서 돌연이탈을 달아서 수장시키는 등 박해하였으나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그들을 공회하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전교

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했다.

영성팀은 염산교회 19대 담임목사인 임준석 목사의 안내로 영상관, 전사실 등을 둘러보았으며 순교자가 3개월에 걸쳐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라며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순교 선진들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는 일상 각오의 순교신앙을 다짐하였다.

노회별 지역 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야외 스타벅스 자택 식사를 마치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인 안성삼 박사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성목회"라는 제목으로 현대 교회의 참회원인을 신학의 좌경화나 세상의 인본주의 풍조로 자조하기 보다는 영성 회복이 우선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신학적 교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십자가의 능력, 사랑을 위해 쓰여진 나의 삶, 정말 나의 생애까지도 또는 다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용기가 있을 때, 그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를 심어주는 과제가 됨을 전했다.

수련회 셋째날인 27일 오전 6시30분 중부노회장 황봉기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가 시작되어 한서노회장 김기흥 목사가 기도하고 부총회장 신인창 목사는 마가복음 7:31-37절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설교를 끝으로 진행위원장 황봉기 목사의 광고, 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영성 회복과 지역 복음화의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각기 목양지를 향해 발걸음을 뒀다.

취재부 김정욱 기사



"그리운 내 고향 산천"



임예성(웅선) 목사
논설위원

나는 시골 출신 촌뜨기다. 그러나 도시에서 산지도 벌써 30년이 넘어 간다. 이렇게 긴 세월을 도시에서 살다보니, 이제는 시골 생활이 먼 옛날처럼 느껴진다.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시골 생활은 아직 문명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화적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전기도 없어 호롱불 밑에서 식구대로이 잠던 시절이요 TV는 고사하고 라디오나 전화도 없던 시절이었다.

시골이다 보니 사시사철 식구들이 달라붙어 낄이면 날마다 들녘에 나가 일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으며,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불 때고 고구마 삶아 먹고 살던, 어떻게 보면 고단한 삶의 현장이었다. 변변한 도로하나 없이 그나마 있던 논밭마저 흠투성이 길이어서 겨울엔 고무신 신고 어디를 가거나 허려면 얼었던 흙이 녹아 신에 딱 달라붙어 그걸 떼 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도시로 나오니까 이 촌놈의 눈에는 온 도시가 별천지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새롭고 편리하기만 했다.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 신에 흠안 묻히고 편하게 갈 수 있어 호롱불 밑에서 식구들과 안 해도 연탄만 잘 깔면 따뜻하게 잘 수 있어 편리했다. 그러나 도시에 계속해서 살다보니 낯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허전해지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처음에는 도시가 편리하고 사람들이 북적여서 좋았는데, 살다보니 그 마음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도시에서의 삶은 점점 무력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다. 요즘 도시들은 날로 더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창조도시, 도시재생, 행복도시, 꿈의 도시, 친환경적 미래도시 등이 사람들이 그리는 멋진 도시를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문화시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첨단과학과 새로운 기술력에 맞물려 도시의 점점 더 화려한 모습이 진화해 가는 것에 비해, 왠지 도시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부담감과 복잡함,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삶으로 다가올 뿐이다. 사실 도시의 생활이 아무리 좋고 별천지의 삶이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가진 자들은 몇 십억 나가는 초호화 아파트에서 살면서 모든 문화적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세한 사람들은 문화적 혜택을 커녕 겨울

을 나기도 힘들다.

대부분 그러하듯이 옛날엔 시골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미개한 것처럼 느껴져서 큰 꿈을 안고 도시로 뛰쳐나왔는데, 이제는 그 시골에서의 삶이 그립기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은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시골의 삶은 비록 가난하게 살고 문화적 혜택이론 거의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지만 온 식구가 모여서 얼골 맞대고 생사를 같이하던 행복한 가족 공동체였다. 같이 일하고, 같이 밭 먹고, 함께 팽ullan 그야말로 인간미가 넘치는 생활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웃들 간에도 친 형제처럼 서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과 힘으로 어려움도 같이 나눠먹고 누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일처럼 달려들어 같이 힘을 합쳐 해내는 진정한 마을공동체였다.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싶다. 또 풍요에도 풍요가 있어 하루는 이집 하루는 저 집 하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정겨움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있어 고향은 여전히 꿈의 장소다. 나는 그 어떤 노래보다도 '고향의 봄'을 좋아한다. 나는 외롭고 고향이 그리울 땐 늘 이 노래를 불러본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리던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고향을 꿈꾸고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많은 시절을 보내고 나니 지치고 고단하여 이제는 나머지 내 인생, 고향 시골의 한 모퉁이에서 보람 있게 살고 싶다.

고향은 내 삶의 공간이요 마음의 터전이다. 풀내음 가득하고 꽃향기 그윽한 시골, 봄이면 복숭아꽃, 배꽃으로 예쁜 단장한 아름다운 내 고향 산천.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시골! 이는 내 삶의 향수이자 미래의 나와 내 후손의 안식처다. 안락과 편안, 여유와 힘이 있는 곳이 도시로 놓인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시골이 그렇다. 지금도 여전히 도시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행복한 시골의 삶을 꿈꾸며, 도시를 떠나, 나의 살던 고향 한구석에서 나의 마지막 인생을 보람차게 보내고 싶다.

지저스타임 · 언론부흥사협의회 수련회를 위해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 총재 (안부협 총재) 허창범 목사 (웨신총회장)	사장 (명예총재)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대표이사 (상임대표) 정기남 목사 (진리선포교회)	사무총장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에녹총회)	명예이사장 (자문)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명예이사장 (자문) 이영중 목사 (빛교회)	교문 (지도위원) 이홍규 목사 (자구교회)	부이사장 (명예총재) 이규필 목사 (합보총회)	부이사장 (명예총재) 장한국 목사 (쌍성중앙교회)	부이사장 (부총재) 정대성 목사 (쌍성중앙교회)	부이사장 (부총재) 박정균 목사 (변성교회)	수석상임이사 (부총재) 오중실 목사 (홍성대일교회)	부사장 (수석상임회장) 이운자 목사 (벨렐중앙교회)	부사장 (수석상임회장) 박수영 목사 (대구지사)	부사장 (부총재) 강요섭 목사 (충북복합교회)	부사장 (부총재) 김창동 목사 (해남미디어교회)
상임이사 (부총재) 노병주 목사 (부천지사)	자문 (연구위원) 이홍희 목사 (속대교회)	상임이사 (간사단장)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상임이사 (총무국장) 백운성 목사 (안산지사)	자문 (지도위원) 최순길 목사 (수목교회)	자문 (지도위원) 박경휘 목사 (홍신대교회)	상임이사 (상임회장) 신인창 목사 (웨신부총회장)	상임이사 (상임회장) 곽동훈 목사 (강원본부)	상임이사 (상임회장) 최낙현 목사 (강원지사)	상임이사 (상임회장) 이기하 목사 (포천지사)	상임이사 (상임회장) 홍영표 목사 (경목사총회)	상임이사 (상임회장) 서명범 목사 (예수교회)	상임이사 (상임회장) 곽인근 목사 (공익교회)	상임이사 (논설위원) 염광일 목사 (한서교회)	상임이사 (부총재) 김중익 목사 (대우교회)	상임이사 (부총재) 김창중 목사 (웨신총회총무)
논설위원 (상임회장) 임용선 목사 (백골교회)	운영이사 (사무회장) 윤재섭 목사 (광주교회)	상임이사 (부회장) 이선한 목사 (영광교회)	상임이사 (사무회장) 유윤주 목사 (조계교회)	상임이사 (사무회장) 김선우 목사 (주사랑교회)	상임이사 (회계) 김부경 목사 (진리선포교회)	운영이사 (사무회장) 박영미 목사 (해남미디어교회)	운영이사 (사무회장) 김창중 목사 (주미교회)	운영이사 (사무회장)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운영이사 (사무회장) 류기현 목사 (천안지사)	총무이사 (사무회장) 김지연 목사 (성진교회)	취재부지 (사무회장) 김정욱 목사 (웨신총회총무)	언부협 (공동회장) 정사리 목사 (성진교회)	광교국 (총보이사) 성순희 기자 (JTNTV)		

1박 2일 동안 강원도 목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열린 수련회를 협력에 끼치지 않았기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본사 수련회를 위하여 강사와 협찬으로 수고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총재/이사장 허창범 목사, 부이사장 박정균 목사, 부이사장 서명범 목사, 운영이사/사무총장 윤재섭 목사, 시장/명예대표총재 소진우 목사, 폐회예배 후 중식을 제공하셨으며, 부이사장/부총재 정한국 목사, 기념품 80점을, 부이사장/명예총재 이규필 목사, 부이사장/부총재 정대성 목사, 수석상임이사/부총재 오중실 목사, 수석상임회장/부총재 박수영 목사, 상임이사/상임회장 서명범 목사, 상임이사/간사단장 조영만 목사, 자문/연수원장 이홍희 목사, 대표회장/광명인 목사 등이 감사드립니다. "수련회기간 주옥같은 말씀으로 특징을 맡아주시고 여러 교수님의 강의 인터넷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은혜가 넘치기에 벌써 접속수가 각각 80만을 넘어섰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목회하는데 큰 유익의 유행유가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 지저스타임즈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에서는 문서선교에 뜻을 같이할 이사님과 능력 있는 부흥사님의 가입을 전격 환영합니다. 현재 인터넷(<http://jntv.kr> <http://cpj.kr>) 두 곳에서 많은 정보와 교계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연락처 : 경기도 부천시 지장로176번길 대표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010-5468-6574 <http://jntv.kr>
E-mail : jpress@hanmail.net jntvcjp@naver.com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제목: 죽음과 심판의 의미와 특징
성경: 전도서 3:16-22 찬양: 찬송가 324장
 세상 인간이 누구나 기억해야 할 문제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 세상의 가치 판단과 가치 추구의 한계를 깨닫게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인간들로 하여금 허무를 피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죽음은 불신자로 하여금 인생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법정에서의 심판과 다른 점은 선악간에 행해질 분명한 공의의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것은 인생 전체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회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전인류가 대상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석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죄의 표본인 네 가지 죄목

성경: 잠언 30:11-14 찬양: 찬송가 94장
 인간의 타락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됩니다. 불효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위선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움을 씻지 않는 죄입니다. 세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입니다. 네번째, 탐욕은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공평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죄입니다. 성도들은 이 죄악들을 기억하고 이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제목: 미움을 통한 교훈, 르무엘을 향한 어머니의 훈계

성경: 잠언 30:24-28, 31:1-9 찬양: 찬송가 279장
 게임은 근면성과 준비성을, 사냥은 자신의 은신처 마련의 지혜를, 매꾸기는 질서를, 도마뱀은 담대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창조성을 거스리는 사람은 연약한 미물보다도 못합니다. 아들인 르무엘 왕을 향하여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으로 왕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와 술을 삼가하고, 공의로 재판하며, 권좌에 있는 자들이 수많은 여인들과 학예에 빠져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을 기억하여 경계시켰습니다. 또한 술을 선한 것으로 찬양하거나 마실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훈계입니다. 만약 자신의 권력으로 하층민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그 지위는 자신을 패망케 하는 저주의 자리가 될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지 아니할 만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서원의 의미 / 현숙한 여인

성경: 잠언 31:2, 31:10-31 찬양: 찬송가 304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은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이 주는 성실함에 대해 말해 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매일의 생활을 근신하고, 품위 있게 행하며, 가족들을 영혼하게 보살피고,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웃으며 사는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먼저 위로와 만족을 얻으며 자식들에게 사례를 받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현숙한 여인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아 자신을 뒤돌아 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목: 헛된 인생

성경: 전도서 1:1-11 찬양: 찬송가 305장
 '헛되고 헛되니'란 말은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으로서 인생이 본래 헛된 것이 아니었지만 죄를 범한 후 인간과 우주가 허무함에 빠졌음을 의미하였습니다. 니다. 절망의 탄식이 섞여 있지만 헛된 세상에서 그치지 말고 구원을 발견하

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과 함께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된 인생의 본질적인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죄인의 종말 / 인간 지혜의 한계

성경: 전도서 1:9-11, 1:12-18 찬양: 찬송가 315장
 죄인인 인간의 운명은 역사적 사실로도 알 수 있지만 개인의 노력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킬 수 없는 제한된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인은 역사의 망각 속에서 침몰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과 함께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며 깨닫는 과정이 괴로운 뿐만 아니라 내용은 현재를 더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신앙의 응답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목: 쾌락의 특성

성경: 전도서 2:1-23 찬양: 찬송가 280장
 쾌락은 자기 중심적(ego-centric)이고 물질주의적이며, 방탕하여 결국은 허무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나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지혜조차 사람을 참 행복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전도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인간 수고가 허무한 이유는 수고의 과정이 고통을 동반하며 수고의 결과가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타인에게 넘겨질 수도 있기에 그 허무함은 더합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간 수고의 문제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영혼의 수고를 사모하며 일해야 합니다.

제목: 행복과 소망의 근본, 하나님의 업적

성경: 전도서 2:24-26, 3:11 찬양: 찬송가 310장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영원(永遠)과 상대(相對)의 위치에 선 인간 존재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영원하신 계획을 측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을 향유해야 합니다.

제목: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

성경: 전도서 3:14 찬양: 찬송가 311장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나 미래에도 불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고민의 해결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설교 |

당신의 기다림은 계 22:20-21, 눅 11:9

인생은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부터 기다림의 인생으로 태어난다 하겠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삼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 사람은 그 형편 처지를 따라 기다림이 다르다. 부모는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교육시킨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모두가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고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는가가 문제이다.

첫째로, 의를 기다리고 산다(마 6:33).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의를 구하고 사는 생활이 즐겁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림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의를 기다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불의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가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 의를 기다리는 사람(마 5:6), 참을 기다리는 사람(빌 4:8), 바른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러한 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한 눈을 팔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예수님이 걸이시다. 이 길은 기도하며, 무릎으로 걷는다.

둘째로, 신앙으로 심고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법사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롬 14:23).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대로 거두게 된다(갈 6:6-10).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림 같이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열매를 삼년 동안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주인이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농부는 요구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참아야 한다. 열매의 뒤에는 많은 인내와 피땀이 숨어 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

정기남 목사 편집인



아도 성실히 믿음으로 할 때에 반드시 많은 수확이 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시 126:6).

셋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기다림이 있다고 했다.

인생도 그 기다림이 천대만일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을 위하여 기다릴 것이 많으니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다릴 일이 더욱 귀하고, 더욱 큰 것이다. 성스럽고 거룩한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고전 12:31-).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였다. 결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관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이를 믿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다(요 14:1).

넷째로 인생은 분명히 기다림의 삶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어두운 고목길에서 감도의 기다림도 있고 방황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음탕한 여인의 꿀물도 기다리며 영혼의 사람꾼의 그물도 덮힐 자를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기름준 비 다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농부는 요구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참아야 한다. 열매의 뒤에는 많은 인내와 피땀이 숨어 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

수도권지역 경기·여주 주택 · 대지 특별분양

전원주택단지 대지 주택 특별분양 이미 관심 속에 매매되고 있는 여주전원주택 은행대출 분양가의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지중화



대지특별분양(70,680,000원)
 (임야 33㎡당 40만원, 약6600㎡ 매매임)
 현재 또는 2-3년 후에 건축가능 원형
 대지(330㎡+도로46㎡) 합계 376㎡
 3.3㎡당(62만원)376㎡=합계 70,680,000원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99㎡, 1억8500만원/평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72.6㎡, 1억 5500만원/평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1층 72.6㎡, 2층 26.4㎡)
 대지 333㎡, 도로 46㎡ 합계 379㎡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 ◆ 제2영동고속도로
-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56.95KM)
-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 강남분당에서 대신IC까지 45분소요
-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소요
- ◆ 여주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57km)
-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12분
-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20분 (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소요

주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산 48번지)

전원주택홍보전화

010-5468-6574
 010-3478-6574
<http://cpj.kr>
<http://jtntv.kr>에서
 팝업창 광고 진행 중

분양의 02)854-1355

EXPLO2018 제주선교대회 화합의 은혜 속에 마쳐

제주선교대회의 백미는 단연 제주미션으로 큰 성황 이뤄



한국CCC와 제주 교계가 공동으로 개최한 'EXPLO2018 제주선교대회'가 6월 29일(금) 제주도 새별오름에서 드린 헌신예배를 끝으로 4박 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JESUS FOR JEJU, JEJU TO JESU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교육 및 저녁집회, 선교박람회와 제주 해안 청소, 선교 유적 탐방의 제주미션1 등을 진행했다. 제주선교대회는 연일 2만여 명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하며 제주복음화를 위한 뜨거운 은혜의 현상이 됐다. 한국CCC에서 300여 개 대학 1만여 명의 청년들과 26개국 500여 명의 해외 참가자를 비롯해 매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집회장은 찾은 제주 교계 성도들까지 약 3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EXPLO2018 제주선교대회는 제주복음화를 위해 제주 전 교회가 연합하고 청년 선교단체인 CCC가 함께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 사역 부흥을 위해 힘을 모은 귀중한 시간이었다.

LTC, 성경강해, 캠프세미나
첫째 날 개회예배를 통해 성대한 막을 올린 EXPLO2018 제주선교대회는 둘째 날(27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LTC와 성경강해, 캠프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도와 제자화 훈련으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리더들을 길러내는 LTC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3단계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하는 성경강해 프로그램은 19개 강의가 개설되어 참가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했다.

졸업반 학생들의 졸업 이후 '평생 순장'의 삶을 돕는 '캠프세미나'에서는 김윤희 교수(FWIA 대표)를 비롯해 백지선 감독(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송옥환 대표(NIKE Korea), 김호민 대표(스파크랩) 등이 멘토로 나서 예비 사회인인 졸업반 참가자들에게 멘토 특강을 진행했다. 아울러 빌황 대표(알케고스 캐피탈) 등 투자, 스포츠, NGO, 외교, 인사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에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유익한 가르침을 선사했다.

교육 일정이 진행된 둘째 날(27일)에는 믿지 않는 참가자들을 위한 시간인 '새친구반'이 제주 중문교회에서 '갓튜브'라는 주제로 열렸다. 26개국 500여 명의 해외 참가자가 참여한 이번 제주선교대회는 지난 2007년 'CM2007' 이후 최다 해외 국가가 참가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한편 선교박람회에서는 단기선교, 미전도 캠퍼스 개척 프로젝트인 A6 프로젝트, 1년 이상 해외 선교지에서 전임선교사를 도출하고 캠퍼스 사역을 일으키는 STINT 등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을 도전하고 상담도 진행했다. 앞으로 짐바브웨CCC도 한국CCC와 A6, 단기선교, STINT 등으로 계속 좋은 협력을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선교대회에 참가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 한국CCC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EXPLO2018 제주선교대회는 단순히 대규모 집회를 통한 일회성 부흥회가 아니라 제주 교계와 CCC가 지속적으로 제주복음화를 위해 협력하는 시발점이 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에는 수련회 넷째 날(29일)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FWI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現 KBO 총재)를 비롯해 빌황 대표(알케고스 캐피탈), 정진호 대표(The Wells Investment), 김영목 대표(G&M Korea), 송옥환 대표(NIKE Korea), 현대원 교수(서강대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 수석) 등을 초청해 '성경적 기업 경영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워 민족복음화 전략을 세워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EXPLO2018 제주선교대회의 백미는 단연 제주미션이었다. 수련회 셋째 날과 넷째 날 진행된 제주미션1에서는 제주 전역 16개 해안 프로젝트를 성내교회, 이도종 목사 생가 등 제주 선교 유적을 탐방하며 사랑을 전하고 제주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제주도 하면 아름다운 풍경만 생각했는데 제주 숨겨진 모습을 보며 제주를 이해하고 봉사할 수 있어 뜻깊었다. 앞으로도 제주복음화를 위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노력

을 하겠다."라고 봉사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선교대회가 끝난 30일(토) 이후에도 약 3천여 명의 참가자가 제주에 남아 제주미션2와 2주간의 제주 단기선교를 진행한다. 제주 각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동가, 교회 페인트 칠, 노인 의료봉사와 발 마사지, 방충망 교체 등 다양한 형태로 제주 교회와 주민들을 돕는 사랑의 섬김을 펼친다.

매일 선교대회 일정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저녁집회였다. 첫날 저녁집회에서는 박성민 목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 집회에서는 제주해녀선교회가 '이기종 목사와 해녀들'이라는 연극을 공연해 참가자들에게 제주 선교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고, 이번 EXPLO2018 제주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법환교회 신관식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셋째 날도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도전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인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도전했다.

메시지 이후에는 김장생 간사(GSM, 해외선교사역 책임)가 나와 선교대회에 참석한 26개국 500여 명의 해외 참가자를 소개하고 축복하며 제주복음화를 넘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넷째 날 저녁집회는 헌신예배로 메시지를 전한 박성민 목사는 "하나님께서 제주선교대회를 시작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은 꿈이 아니라 계획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

는 것 이상을 꿈꾸자. 하나님에 일하실 것이다. 혼자 꾸는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역사가 될 것이다. 제주의 성도들과 CCC 청년들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다가올 통일 한반도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자."라고 도전했다.

모든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셀러브레이션 시간에 CCC 청년들과 제주 성도, 해외 참가자 구분 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보냈다. 선교대회 기간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버스 게 제주 선교 110주년, 한국CCC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부흥의 현상이 된 EXPLO2018 제주선교대회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제주 교회의 연합, 제주 성도들과 CCC 청년들의 연합이었다. 선교대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460여 개 제주 교회 목회자들과 CCC 간사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준비 과정을 함께 했고, 선교대회 기간 중에도 제주 성도들이 공양에서부터 참가자들을 미소로 반기며 환영하는가 하면, 수송, 배식, 안전 등 모든 영역에서 제주 성도들과 CCC 구성원이 하나 되어 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앞으로 제주 교회와 한국CCC는 제주복음화를 위해 한국CCC 6개 광역지구와 제주 6개 지역이 영찬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EXPLO2018 제주선교대회를 통한 한국CCC와 제주 교회의 동역은 도시 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새로운 모델로서 향후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 폼페이오, 평양에서 상당한 홀대 받아



"전역적인 북한의 협상전술이 아닌가 싶다" 평양을 떠날 때만 해도 호의적인 발언을 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회담 느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은 지난 싱가포르 북핵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자리였으나 결국 북한의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시간을 끌려는 북한과의 입장차가 또렷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을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유지'라는 말을 썼다.

그러나 이 표현이 한미일 회담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았다. 폼페이오는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강요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는 강도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제재 조치 역시 북한과의 협상 '진전'만으로 완화할 수 없다

는 뜻도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도착해 상당한 홀대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함께 동행한 미국 기자가 밝힌 취재기에는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평양에 도착해 방북 일정도 전달받지 못했다. 숙소조차 파악 못했다'고 언급해 상당한 홀대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를 접한 일본의 외교 분석가들은 "결국 북한을 순진하게 대한 미국이 북한의 협상 전술의 실체를 파악했고, 앞으로 더 강경한 압박책을 쓸지 모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시너타임즈US]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한총연]

Korea Counsel Christian Conservative Denominations

저희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평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존중하고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교단과 단체를 환영합니다.

대표회장	총재	상임고문	총무	서기	회계
					
박 동 호 목사	허 영 무 목사	남 성 운 목사	고 광 원 목사	이 상 원 목사	장 석 일 목사

추진사업

- 교단, 단체 화합을 위한 친교 유대사업
- 목회자 자질을 돕기 위한 신학 교육사업
- 기독교 문화발전 및 문화개발사업
- 세계선교 및 국제전도 문서사업
- 국제간의 학술 및 문화교류사업
- 국내외 교회실질 및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사회봉사 헌신을 위한 빈곤 계층 이웃사랑 선교사업
- 기타 본 본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한총연 연혁

- 1987년 12월 14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 한기보) 허가를 받음
- 제31차 정기총회를 계기로 한기보와 분리, 2017년 3월 제31차 정기총회를 별도로 개최 한총연으로 법인 발족하기로 함
- 2017년 3월 한총연 총회서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선출, 2017년 4월 28일 한총연 법인 설립 허가 받음
- 2018년 1월 8일 새해 신년 하례(시무)예배

WCC개발운동본부 · WCC반대 대책위원회 / <http://www.반대.com> <http://www.accusation.kr>
 21080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7번길 4, 701호 ☎ 1588-0342 <http://www.kcccd.org> <http://www.한총연.org> FAX : 0505-303-0342 pdh@kcccd.org kcd@kcccd.org